

무주군, 적상산성 정비 시동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갖고 복원사업 추진 방향 제시

무주군이 29일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조선시대 사고를 보관했던 적상산성 종합 정비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군은 이날 3층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자문위원,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남해경 교수 등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상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복원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이날 남해경 교수는 "주민참여형 복원 방식을 제안하고 복원에 필요한 석재를 직접 운반하거나 채석 체험 등을 통해 문화재 복원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심어 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적상산성의 정비에 앞서 학술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상산성내의 건물지와 우물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4대 문지에 대한 시굴도 함께 진행, 4대 문지 복원 추진을 통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상산성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여지승람 등의 옛 문헌에 의하면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고려중기 이후 축성됐을 것으로 진단했다.

8.3km에 이르는 산성은 너비와 높이가 구간마다 다르고 현재 남아 있는 북문, 서문을 비롯해 동문과 남문이 있었으며, 성내엔 우물이 23~43개소가 있었다고 관측했다.

또 성벽의 발굴은 적상산성의 대부분을 하는 것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에 의해 일부분만 진행하도록 하고 무너진 구간의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



무주 적상산성.

랍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적상산성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훼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더 많은 사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 용역 결과 정밀지표 조사를 비롯한 시굴조사, 발굴조사, 학술대회 순으로 정비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재정 계획은 문화재 원형회복의 우선순위에 합리적 복원 공정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투자비의 집중 보다는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GPS 측량과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해 보존 관리하는 현장 기록화 사업도 함께 병행했다.

군은 사적 제146호인 적상산성 복원과 함께 적상산사고, 안국사 등 산성

주변 역사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적상산, 적상호, 머루와인동굴 등의 관광명소화로 주민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적상산성 정비는 무주군의 향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한 미증물이 될 것"이라며 "조선시대 실록을 보관했던 역사적 의의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산성으로 무주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 국비 3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으며,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상산성 종합정비 중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역사 자원을 살린 복원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재해로 인한 사망 등 보상... 피보험자·법정 상속인 청구해야

진안군은 29일 진안군민 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기준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2만5,561명으로 2018년 시행 이래 총 10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진안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약 2,500만원을 납부해 군민의 보장 한도는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항목을 추가해 17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 1급~5급)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이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반드시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별도의 홍보물, 읍·면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전종일 진안 안전면장 40년 공직생활 마무리



진안군 전종일 안전면장이 4월 말로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전 면장은 1981년 첫 공직에 임용돼 진안군의회 전문위원, 산림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년 1년여 남았으나 후배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명예퇴임을 선택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진안군 11개 읍·면에서 골고루 근무한 현장 경험을 살려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품목육성에 힘썼다.

또한 안전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주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전 면장은 퇴직 후에도 진안군에 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안농업 발전을 위해 민간 농정기획단을 설립하고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이 대부분인 진안군의 농업 환경에 맞는 농작업 대행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정천면 협의체 정천천사 스티커 배부

진안군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안인재, 이하 정천면협의체)는 29일 '정천천사들의 꿈dream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의 로고를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정천면협의체는 지난달 28일 '꿈dream의 꿈을 응원하게 될 정천천사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정천면의 복지가 훌쩍 나아오르겠다'는 뜻을 담은 로고를 확정했으며, 빨간 하트와 천사 날개 모양의 로고는 앞으로 프로젝트로 수행 하게 될 모든 사업을 상징하게 된다.

협의체는 제작한 스티커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정천천사들에게 배부함으로써 후원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주민들에게 프로젝트가 항상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인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이 농업인의 재해예방과 마을 단위 자체 추진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 농업인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2021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농촌마을의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재해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심의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2월중 적상면 마산마을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5,000만원(도비 2,500만원 포함)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약중독 위험노출 감소를 위한 농약안전 보관함 방제복 마스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산물 운반기 고추수확차 전문분부기, 마을 내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폐농약병·페비닐 안전 적재함,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2일 마산마을을 방문하고 "이번 사업이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선 활동과 교육 참여를 통해 농작업 안전의식 함양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내년부터는 '농업인 안전마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로컬JOB센터, 농업인 위한 중장비 교육 수료식

전문교육 과정 19명 수료

장수군로컬JOB센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는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2021년 농업인을 위한 중장비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장비 교육은 장수군로컬JOB센터 취업프로그램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설됐으며 20명의 지원자들이 교육에 참여해 총 12시간(이론수업 6시간, 실기수업 6시간)의 교육을 이수완료해 1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장수군민의 직업능력 강화와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취·창



업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6~23일까지 3분 미만 건설기계조종사 굴착기면허 취득과정이 운영됐다.

19명의 교육 수료생들은 전문적인 면허를 취득해 관련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

더불어 센터는 이번 교육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민강 장수군로컬JOB센터장은 "매년 장수군 내에 구직자와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대상자를 넓혀 장수군으로의 정착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취업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직난 해소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시설물 점검·설치

장수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인 덕산계곡, 토옥동 계곡, 방화동계곡, 외동리 계곡, 요전, 신기하천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유실된 안전시설물 확인, 설치된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함의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신규 설치 장소 등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라 군은 이달 말일까지 천천면 연평리 신기하천, 계북면 토옥동 계곡 총 2개소에 물놀이 위험 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을 신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